

의대 정시 합격선 1위 '가톨릭대' 호남·충청권, 전국선발보다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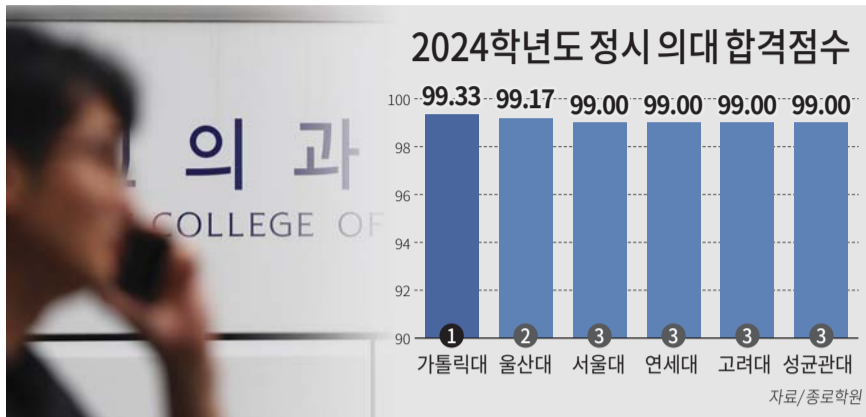
종로학원, 작년 의대 합격선 비교 의대 정시 합격선, 서울대가 '3위' 과탐 II 조건 완화에도 예측 어려워 지방권 지역인재전형 합격선도 ↑

2024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시모집에서 서울대학교 합격선이 가톨릭대학교·울산대학교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 서울대가 2024학년도 입시부터 자연계열 '과탐II 필수 응시' 조건을 없애며 입시 정책을 완화했지만, 수험생들은 되레 합격선 예측에 어려움을 느끼며 선뜻 정시 지원 카드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종로학원이 2024학년도 전국 의대의 정시 국어·수학·탐구영역 백분위 점수로 기준점이 동일한 31개 대학 최종 등록자 중 상위 70%에 해당하는 입학생의 합격선을 비교한 결과, 서울대를 제치고 가톨릭대가 99.33점을 나타내며 합격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울산대는 99.17점이며, 공동 3위를 차지한 서울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각각 99.00점이다.

통상 '빅5' 병원을 보유한 의대의 합격선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만, 서울대가 지난해 자연계 모집 단위에서 과탐 II 필수 응시 조건을 완화하면서 서울대 의대 경쟁률 및 합격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은 빗나갔다.

실제로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의대의 경우 고려대가 3.53대 1로 제일



높았고, 연세대 3.43대 1, 서울대 3.15대 1을 나타냈다.

대학 입시 관계자는 "서울대의대 응시 조건 완화가 역반응을 일으켰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가 자연계열 '과탐II 필수 응시' 제한을 풀면서 더 많은 최상위권 수험생의 도전이 있을 것이라 예상과는 달리, 예년과 다른 입시 정책에 따라 합격선 예측에 어려움을 느끼며 일부 의대 지원자들이 선뜻 지원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24학년도 의대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 평균합격선을 지역별로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은 97.92점을 기록한 호남권이다. 이어 ▲대구·경북(97.83점) ▲제주(97.67점) ▲부산·울산·경상(97.28점) ▲충청(97.01점) 순이다. 강원권은 정시에서 지역인재 선발이 없었다.

호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인재전형 합격선이 전국 단위 선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권 의대는 정시 전국 선발 평균 합격합격선은 97.83점으로 지역인재 합격점수가 0.08점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권 또한 지역인재 선발 전형에서는 97.01점, 전국 선발 합격점수는 96.50점으로 지역인재 선발 합격 점수가 오히려 0.51점 높게 형성됐다. 제주권은 전국 선발 지역인재 선발이 각각 97.67점으로 동일했다.

이에 대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명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등의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라며 "(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지방권 학생의 전국 혹은 지역인재전형 지원 결정에 고민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방권 정시와 지역인재전형에서는 권역 내 명문 자사고와 일반고 합격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런 회원, '강남인강' 무료로 듣는다

별도 로그인 없이 콘텐츠 무료 제공

서울시의 무료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회원은 이제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강남구청의 인터넷 수능방송인 '강남인강'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강남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이달 15일부터 서울런 회원들에게 강남인강 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런은 경제적인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6~24세 취약계층에 온라인 교육 콘텐츠와 일대일 상담을 제공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서울시의 대

표 교육 복지 사업이다.

강남인강은 강남구가 운영 중인 인터넷 강의 사이트다. 중·고등학생 누구나 내신·수능·입시와 관련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연 5만원(강남구민은 3만원)의 비용으로 수강할 수 있다. 특목고, EBS·대치동 학원 유명 강사진의 강의 2만여개가 마련됐다.

시는 서울런 홈페이지에 강남인강으로 바로 연결되는 메뉴를 만들었다. 클릭 한 번으로 로그인 없이 강남인강 사이트로 이동해 2만개가 넘는 온라인 강의를 학습할 수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착한업소서 서울사랑상품권 쓰면 5% 할인

착한가격업소 대상 배달료 지원도

서울시는 이달 15일부터 시내 1200여개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총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011년부터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가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캐시백은 7월 15일 결제 건부터 적용

된다. 결제금액의 5%가 내달 20일에 환급된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이다. 해당 가게는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와 서울pay+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 저렴하게 착한가격업소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셈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6월부터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배달료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현정 기자

인천시, '닥터헬기' 인계점 57개소 운영

인계점 내 수리·개선 등 관리조치

인천광역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인계점(이·착륙장소)을 57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국내 최초인 2011년 9월 운항을 시작한 인천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전용헬기로 연간 130여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명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 불리는 닥터헬기에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전문 의료 장비와 의약품 탑재는 물론,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해 이송 중에도 응급진료가 가능하고, 365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운영하고 있다.

닥터헬기 인계점은 닥터헬기가 이·착륙하는 장소로, 인천에는 총 57개의 인계점이 지정 운영돼 관리되고 있다. 인천시는 군·구와 지속적인 협의와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인계점 내 수리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 및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김민석 기자 kmmmm112@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지원 대상 확대해야”

서울시민, 온라인창구에 민원 접수 출산일에 따른 주거비 지원 민원에 市, 올해 출생아 소급 적용방안 검토 청년통장 신청대상 확대 요구도

서울시민들이 시정 민원창구 '시장에게 바란다'에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재검토, 희망두배 청년통장 대상자 확대 등을 요구했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의 부모 또는 모에게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4월 서울의 집값이 부담스러워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부모를 돕기 위해 이같은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광진구에서 전세 4억원에 살고 있다고 밝힌 A씨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만 해당되는데, 저희 부부는 올 12월 25일이 예정일이라 일주일 차이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혹시 이 부분을 조금만 수정해 출산일에 따른 지원 기간 변동이라든지, 무주택가구의 소득 기준을 다시 산정해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떨까요"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 공개 이후 많은 시민과 관련자들의 의견이 있어 올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원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송파구 일대 한가람로 연결 사업 재추진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원인 B씨는 "한가람로 연결은 풍납동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데 풍납

동 주민들에게 양해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중단돼 납득이 가지 않았다"며 "애초 롯데타워 건축 심의 내용에 따라 풍납동까지 한가람로를 연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도계획과는 "교통수요 예측, 경제적 타당성 등을 올 연말까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 자녀를 둔 C씨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까지 늘려달라고 호소했다. C씨는 "기초수급자는 자산이 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점을 고려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하지 않도록 막아둔 것이라고 하는데, 실소를 금치 못했다"면서 "가난한 자에게 고기를 먹이면 체하니까 고기반찬을 주면 안 된다는 논리와 비슷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김현정 기자 hjk1@

오늘의 날씨

7월 15일 (월)
음력 : 6월 10일

수도권 날씨
23 ~ 3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해돋이 / 05:23 | 해질 / 19:53

인천 24/30, 수원 24/29, 평택 22/30, 파주 21/31, 서울 23/31, 양평 22/30, 용인 24/29, 가평 21/31, 동두천 22/31, 백령도 21/2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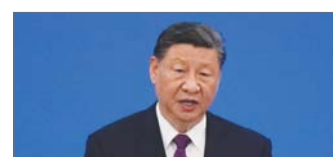
뉴스비 바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FBI, 트럼프 유세장 총격범 신원 파악...20대 백인남
- ▲이스라엘군, 가자 남부 폭격... 사망자 90명으로 늘어

/사진 뉴시스

- ▲트럼프 “총알 오른쪽 귀 관통...미국에서 이런 일이”
- ▲이란 대통령 당선인 “중러와 협력 강화할 것”



- ▲中 ‘3중전회’ 15일 개막...시진핑 경제정책 청사진 공개
- ▲트럼프 총격 부상 소식에 비트코인 6만달러선 회복

/사진 뉴시스